

지속적 외래 복막 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투석 도관의 자발적 노출 1예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양재원, 송신한, 김민근, 김재석, 한병근, 최승옥

Spontaneous Exposure of Peritoneal Catheter in Patient with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Jae Won Yang, Shin Han Song, Min Keun Kim, Jae Seok Kim, Byoung-Geun Han, Seung Ok Choi

Yonsei University Wonju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배 경: 복막투석과 관련된 주된 합병증은 감염이지만, 복압 상승과 관련된 탈장 또는 투석 액 누출, 복막투석 도관 기능 장애 등의 기계적 합병증도 복막투석 유지를 방해하는 흔한 요인들이다. 본 저자들은 복막투석 환자에서 외부 충격 없이 자발적으로 도관의 중간 부위가 노출되었고 이를 수술적 도관 교정을 통해 복막투석을 유지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 례: 66세 남환은 당뇨에 의한 말기 신부전으로 2006년 11월에 복막 투석을 시작한 분으로 1개월전 평소 즐겨 하던 역기운동 후 발생한 복막투석 도관 노출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은 140/70 mmHg 였으며 심박동수는 분당 61회, 호흡수는 20회, 체온은 37.2°C 였다. 환자의 몸무게 69 kg으로 양 하지의 부종은 관찰되지 않았다. 육안상 배꼽과 도관 출구 사이에 복막투석 도관이 3 cm 가량 노출되어 있었다 (Fig. 1). 노출 부위에 발적이나 분비물은 관찰되지 않았고 복부 압통 및 반발통은 없었다. 혈액검사상 혈색소 10.2 g/dL, 백혈구 6,530/mm³, 혈소판 209,000/mm³을 보였다. 혈청 전해질 검사에서 나트륨 139 mmol/L, 칼륨 5.0 mmol/L, 혈청요소질소 59 mg/dL, 크레아티닌 11.1 mg/dL 이었다. 임상화학검사에서 Total protein 6.7 g/dL, Albumin 3.9 g/dL, AST 9 IU/L, ALT 9 IU/L, 총빌리루빈 0.2 mg/dL였고, C-reactive protein 0.05 mg/dL 로 정상이었다. 복막투석액 검사소견은 백혈구가 검출되지 않았다. 내원 당시 시행한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도관의 팁이 좌상측으로 향해 있는 점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다. 입원 5일째 도관 교정 수술을 시행하여 외측 커프를 포함한 노출된 도관을 피부 밖으로 빼내었고, 이후 퇴원하여 현재는 복막염이나 투석액 누출 없이 정상적으로 복막투석을 유지하고 있다.

Key Words: 복막투석, 도관, 합병증

Peritoneal dialysis, Catheter, Complication

